



■ 코로나19 극복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후 첫 주말

전통시장·마트·식당 등 손님 '복적'

‘재난지원금 사용 환영’
상가 곳곳마다 플래카드
상인 “손님들 발길 이어져
소비 깨우는 마중물 기대”
도민 “지원금 가게에 도움”



이달 11일부터 신청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13일부터 쓸 수 있게 되면서 주말인 16일 제주시 칠성로거리가 쇼핑객들로 복적었다. 이상국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유례없는 직격탄을 맞았던 제주지역 상권에 지난 주말부터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13일부터 사용 가능해지면서 소비가 줄어들던 가게에 숨통을 불어 넣어준 것은 물론 잠들었던 소비도 깨우면서 텅 비다시피 했던 지역상권을 깨우는 마중물 역할을 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동안 나들이를 자제하던 이들은 대부분 감염예방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낀 채 쇼핑에 나서는 모습들이었다.

17일 제주도내 상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카드로 신청한 정부 재난지원금을 현장에서 쓸 수 있게 된 후 첫 주말인 16일부터 도내 상가마다 발길이 이어지며 소비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14일까지 나흘간 제주에서는 지급대상 가구(29만5000여가구) 중 34%인 10만2087가구가 676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제주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4월 20일

부터 5월 22일까지 1차로 접수받아 지급중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 상가의 고객 유치전도 달아올라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플래카드를 내건 곳들도 눈에 띄었다. 석달째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충격과 위낙 컸던 터라 재난지원금 사용을 환영한다는 이들의 안내문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던 제주시 중앙지하상가에는 주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고정호 제주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가 한창 확산세를 보였을

때는 매출이 70% 넘게 감소했는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매출이 상당히 회복됐다”며 “앞으로 당분간은 재난지원금이 위축됐던 소비를 깨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육식당이 몰려있는 제주시 서문시장도 지난 주말 손님들로 복적었다. 한 상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올 땐 매출이 50% 정도 줄었는데, 재난지원금이 풀린 후부터는 거의 평소 수준으로 회복한 상태”라며 “손님의 대부분은 도민들”이라고 밝혔다.

평소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던 전통시장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줄지 기대하고 있다. 김원일 동문재래시장상인회장은 “시장은 아직

까지 크게 체감이 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앞으로 시장에도 손님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도민들은 저마다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인가족으로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충전받았다는 주부 김모(제주시 아라동)씨는 “늘 빠듯한 가계살림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우선 두 아이 학원비로 쓸 생각”이라고 했다. 직장인 홍모(연동)씨는 “가정의 달에 돈 쓸 일이 많아 부담스러웠는데, 재난지원금을 가게살림에 보탬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미숙기자

도두항 유람선 법정다툼 제주시 승소

유·어선주 유람선 취항 반발
시 상대로 시설사용정지 소송
지법 “충돌위험 주장 이유없어”

제주시 도두항 유람선 재취항 계획을 놓고 벌어진 유선(경관을 구경하려는 손님 태우는 배)·어선 소유주와 제주시간 법정 다툼에서 제주시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제주시 도두1동 도두항을 이용하는 유·어선의 소유주들이 ‘A유람선사의 도두항 어항 시설 점·사용허가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법적 다툼은 A선사가 도두항과 사라봉을 오가는 486t급 유람선(승객 정원 399명)의 재취항 계획을 세우면서 불거졌다.

A선사는 지난 2010년부터 도두항에서 유람선을 운행해오다 경영난에 부딪혀 지난 2013년 유람선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A선사는 매년 허가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도두항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 권한을 취득했으며 지난해 재취항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도두항 유·어선주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A선사의 유람선이 486t급 대형 유람선이라 정박할 때 도두항의 1/3 이상을 이용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다른 유·어선들의 정박할 공간이 좁고, 유람선과 어선 등이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두항의 어항 구역 면적은 7만7000㎡인데 반해 A선사가 사용하는 면적은 육상과 해상을 합쳐 2012㎡에 불과하다”면서 “또 A선사가 2010년부터 2015년 5월까지(도두항을 이용해) 운행했던 (옛) 유람선은 550t급으로 앞으로 운행하려는 유람선보다 규모가 더 큰데 당시에도 다른 어선들이 어항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았거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hasm@halla.com

경찰서 형사과장 사칭 수역 가로챈 60대 구속

전과 26범... 누범기간 범행

청와대 자문위원과 경찰서 형사과장을 사칭해 수역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64·여)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속여 보합설계사 B(66·여)씨와 B씨 아들 등 피해자 3명에게서 모두 2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청와대 자문위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가로챈 돈으로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썼다.

A씨는 전과 26범으로 이전에도 도내 경찰 간부를 사칭해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등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할 때 일단 의심해 권유하는 상품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코로나19 제주5번 확진자 퇴원후 ‘재양성’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퇴원한 제주 5번 확진자 A(20대 여성)씨가 일주일만에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오후 2시쯤 A씨가 퇴원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제주대학교 음압병실에 재입원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스페인 체류 이력으로 지난 3월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해 지난 8

일 퇴원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제주도 퇴원환자 관리 지침에 따라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보건소의 수시 모니터링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재양성 판정에 따라 현재 제주대학교 음압격리병상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제주 5번, 11번, 14번 확진자 등 총 3명이다.

이태윤기자 ty9456@halla.com

무사증 입국후 육지행 시도 중국인 등 4명 적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7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중국인 A씨 등 총 4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 A(30)씨와 B(51·여)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쯤 제주도 애월읍 애월항에서 5t 트럭 화물칸에 만들어진 가벽 안쪽에 숨어 육지로 빠져나가려 시도하다 서귀포해경과 제주지방해경청의 합동 작전으로 검거됐다. 이

날 현장에서는 이들을 도운 중국인 알선책 H(39·여)씨와 5t 트럭 소유주인 운송책 L(48)씨도 함께 검거됐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로 무사증이 정지되기 이전에 무사증으로 입국했으며, 체류 기간이 경과돼 불법 체류를 이어오다 제주에 입자리가 없자 육지로 이동하려 했다.

서귀포해경은 중국인 4명에 대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도영기자

6500t급 화물선 안개로 좌초

질은 안개 날씨 속에 제주항으로 진입하려던 6000t급 화물선이 방파제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제주도 건입동 제주항 7부두 입구에서 목포와 제주를 왕래하는 S(6562t·벌크선)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인명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예인선 2척을 동원해 S호를 제주항 5부두에 안전하게 계류조치했다. 당시 S호에는 선원 등 27명이 타고 있었으며 차량 35대가 적재돼 있었다. S호는 이날 오전 제주항 방파제로 진입하려 했으나 배의 앞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방파제(테트라포드)에 걸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강다혜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濟州) 리모델링
辛(辛) 一(一) 祚(祚)

누수방지 가시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복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병자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골(묘)분양

중지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번이지
- 천전(가외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골묘목

- * 유라실생 1,2,3년생
-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 천혜향 (무독) 2,3년생
- * 궁천 1,2,5년생
- * 궁천 번이지 1,2년생
- * 하례조생 1,2년생
- * 한라봉 5,6년생
-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중지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